

1·2 2025
vol.385
www.koreacpa.org

자연과농업 Nature&Farming



신년특집

2025년 농정이슈 및 농산업 트렌드

신년인터뷰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현장취재

국산 신품종 '미래향'으로 감귤의 미래를 책임진다!

제주시 조천읍 동인농원 - 김동찬 대표



한국작물보호협회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자연과농업 Nature & Farming

CONTENTS vol.385_2025.1·2



스페셜 & 피플

- 04 **신년사**
염병진 한국작물보호협회장 신년사
회원사 신년메시지
- 10 **신년특집**
농업전망2025
2025년 농정이슈 및 농산업 트렌드
- 16 **신년인터뷰**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 20 **현장취재**
국산 신제품 '미래향'으로 감귤의 미래를 책임진다!
제주시 조천읍 동인농원 김동찬 대표

뉴스 & 브리핑

- 33 **농약안전사용 캠페인 ⑥**
- 34 **우수 추천제품**
- 38 **회원사소식**
- 44 **협회소식**

기술 & 정보

- 46 **슬기로운 농사생활**
겨울철 시설채소의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
한유경 연구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 50 **민원현장**
고추 병해충 방제시 영양제 과다 혼용은 생육불량 일으켜
이인용 기술위원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52 **독성이야기 ⑧**
'유해성'과 '위해성', 농약 안전성 이해의 '첫걸음'
조유미 연구사 /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 56 **문화마당**
 - ① 경계(境界)가 사라지는 시대
'뱀의 감각'으로 기회를 잡아라
 - ② 그때를 아십니까?
명절 선물세트 변천사
- 64 **독자 참여마당**
사진 속 틀린 곳 찾기 /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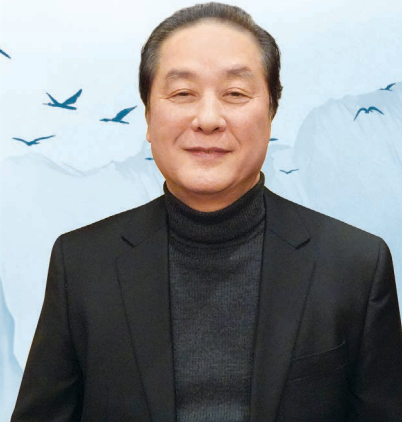
제46권 1호 통권 385호 (비매품)
등록번호 라 - 00080 / ISSN 2287-9374

등록일자 1980.2.27 발행일 2025.2.5 발행인 염병진 편집인 조성필 인쇄처 정우피앤피
발행처 한국작물보호협회 (06741)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대양빌딩) 5층 TEL : 3474-1590~4 FAX : 3472-4134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안정적 식량확보에 필수농자재인 작물보호제 중요성과 이미지 향상에 매진



염병진
한국작물보호협회장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사(靑蛇)의 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산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을’(乙)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며, 푸른색을 상징하고 ‘사’(巳)는 뱀을 나타냅니다. 나무의 기운과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담겨있는 을사년인 만큼 2025년은 새로운 도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 세계식량량보지수(GFS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3개 국가 가운데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 발생 증가, 인구의 지속적 증가, 경작지의 감소 등 갈수록 작물의 생산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

에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소비자 대상으로 안정적 식량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이미지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생산비 부담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작물보호제 산업계는 환경과 인체에 안전한 고효율의 제품을 개발·보급하며 항상 농업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우리가 함께하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농약 산업계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의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㉞

(주)경농

새로운 농업솔루션과 앞선 고객서비스 약속

이용진
대표이사



2025년은 (주)경농과 동오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70년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경농은 새해에도 새로운 농업솔루션과 앞선 고객서비스로 농업인 고객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오R&D센터 준공 및 중앙연구소 이전을 통해 더 큰 기술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의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 친환경제품, 스마트팜 등 농업토탈솔루션의 완성과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업솔루션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성장과 변화, 창의와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주)경농은 도전과 혁신을 쉬지 않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보다 효율적인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농협케미컬

농업인 실익 증진 필요한 곳에 최선의 역할

하명곤
대표이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지혜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농협케미컬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필요한 곳에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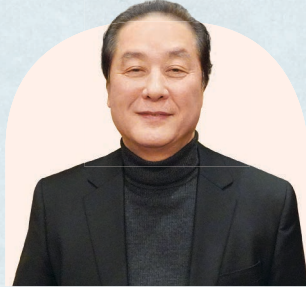
3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불안정한 경기 침체로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성장을 도모하여 풍요로운 농업발전에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동방아그로

**더 나은 제품·솔루션 제공
작물보호제 산업 발전에 기여**



엄병진
대표이사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농업인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동방아그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농업인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동방아그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농업인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작물보호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혁신적 제품 신속하게 공급**



이지숙
대표이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끊임 없는 노력과 헌신, 열정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엘은 팜한농과 한국 작물보호제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부터 바이엘은 혁신우선 전략에 따라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며, 팜한농을 통해 바이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바이엘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한국 농업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보화학(주)

현장에로사향 경청 해결책 제시 '든든한 동반자'

윤정선
대표이사



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병해충의 다양화, 스마트 농업의 확산 등 농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성보화학(주)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작물보호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뱀은 탈피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농업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보화학(주)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통해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삼공(주)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위해 혁신과 도전

한동우
대표이사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기운이 가득한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삼공(주)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팜한농

신물질 개발 노하우 해외진출 경험...농산업 선도



김무용
대표이사

지난해 (주)팜한농은 농업인 여러분께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 효과와 안전성을 높인 고품질 작물보호제 개발·공급에 주력했습니다. (주)팜한농을 믿고 응원 해주신 농업인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주)팜한농이 자체 개발한 신물질 제초제 ‘테라도’가 국내 작물보호제 최초로 세계 10개국에서 연매출 1,13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브라질 등 농업 선진 시장을 공략하며 한국 농업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팜한농은 신물질 개발 노하우와 해외 진출 경험을 농산업계 및 학계와 나누고, 한국 농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디지털파밍 솔루션을 고도화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문그린사이언스(주)

혁신적 작물보호 솔루션 지속가능성 지원



김동진
대표이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우려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농업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선문그린사이언스(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작물보호제 솔루션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농업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농업인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5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바이오(주)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되는 솔루션 제공

이명재
대표이사



2025년에는 여전히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 상승과 같은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인바이오(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여러분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신농약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협회 및 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한얼사이언스

농업·농촌 든든한 동반자 '함께 성장하는 미래'

심봉섭
대표이사



2025년, 푸른뱀의 해인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뱀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이처럼 '일취월장(日趨月張)'의 정신을 되새기며,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한얼사이언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2025년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千里之行始於足下)'라는 마음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푸른뱀의 해에 걸맞게 변화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기본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농업전망 2025

2025년 농정이슈 및 농산업 트렌드



지난해 우리 농업을 관통한 키워드로 ‘금사과’를 빼놓을 수 없다.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금사과, 금배추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정작 농업인들의 주머니 형편은 나아지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후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며 관행농법과 방제법으로는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병해충의 습격에 농업인들의 속이 한없이 타들어간 한 해였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올해만큼은 농업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농가 소득과 경영이 안정화되길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주최로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농업전망 2025’에서는 올 한해 국내외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이 발표됐다. 이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발제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본다.

농가소득 '늘고' 경영비는 '줄고' 벼 재배면적 감축이 관건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농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증가하고 경영비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돈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60조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 8만 ha가 감축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이 경우 쌀 40만톤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어 쌀값 상승으로 생산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식량작물 생산액은 0.8%, 재배업 생산액은 2.4% 감소하는 등 농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액을 좌우할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농가소득은 5,4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농업소득은 1,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지

만 농업소득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총수입이 감소하지만 수입안정보험 등 소득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농가소득 감소폭을 다소 상쇄하는 것을 감안한 결과다.

호당 농업경영비는 투입재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재비와 사료비 등의 하락으로 농업구입가격이 하락해 전년 대비 1.5% 하락한 2,620만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경지면적은 150만ha로 지난해 150.4ha(추정) 대비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53ha로 전년과 비슷하나 농가 1인당 경지면적은 74.9ha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은 전년의 159만3,000ha보다 0.5% 줄어든 158만5,000ha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산업 변화

이번 ‘농업전망2025’에서는 특히 기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농업 현장의 모습에 주목했다. 특히 과수산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수 재배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중장기 과제 등을 짚어낸 발제가 청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상승하고 있다.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름은 20일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열대야가 발생은 8.4일이 늘었으며 한파일수는 4.9일 줄었다. 최근 30년간 강수일수는 과거 30년에 비해 21.2일 감소했으나 연간 강수량은 135.4mm가 증가했고 강우 시간당 강수량도 증



가했다.

이대로라면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작게는 2.6도, 최대 7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강수량은 3~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 전국토의 103%가 아열대기후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2030년에는 18.2%, 2050년이면 55.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당 농가소득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단위: 만원, %)

	평년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2025 연평균 변화율	
					평년 대비	2024년 대비
농가소득	4,630	5,080	5,300	5,430	17.3	2.6
농업소득	1,110	1,110	1,280	1,310	18.5	2.7
농외소득	1,810	200	2,020	2,070	14.1	2.3
이전소득	1,480	1,720	1,750	1,800	22.1	3.0
비경상소득	230	250	240	250	8.6	2.7
농업경영비	2,450	2,680	2,660	2,620	6.8	-1.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농정이슈 및 농산업 트렌드



기후변화가 불러온 과수산업 변화에 주목 ‘예측·적응·완화’ 측면 중장기 과제 수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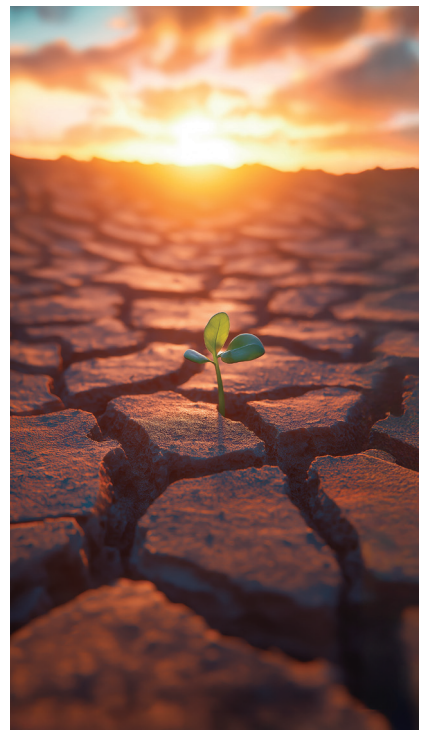
결국 2070년이면 사과 재배적지는 1.1%로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복숭아는 강원도로, 감귤은 제주도에서 남해와 동해안 등 해안지로 확대되는 등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재배지도가 형성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측’과 ‘적응’, ‘완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중장기 과제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측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변동 예측 △영향평가 △병해충평가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 과수 재배지가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과수 생산성·상품성 변화, 병해충의 유입과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적응 측면에서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확대 △이상기상 대응 재배기술의 개발·보급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보급 △병해충 선제적 대응 기술 개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확대 등이 시급하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절감 기술,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외래 병해충 유입과 아열대 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배출 완화를 위한 재배지대 설정 △주요 과수 바이오매스의 탄소 축적량 평가 등 완화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목해야 할 ‘5대 농정이슈’

‘농업전망2025’에서는 올해의 10대 농정이슈가 발표됐다. 농업·농촌에 닥칠 위기와 변화, 대응방안 등이 담겼는데, 이 중 농업인 밀착형 이슈들이 담긴 5개 주제를 간추려봤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식량 안보-스마트화 미래 성장농업 전환
기후플레이션 대응-농업 세대교체 주목

#농정이슈①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그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은 사후적이며 시장 격리, 산지떼기 등 시장개입이 중심이 돼 왔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전이 시시때때로 크게 불안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 대응이 가능하며 물량과 가격, 수입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과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지지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을 탄탄히 할

수 있는 종합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정이슈②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점검·대응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우리의 먹거리,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병해충,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배사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산량과 직결된다. 결국 우리 먹거리 수급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농업 생산기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효율성 증진 △기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수급관리 고도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저탄소 구조 전환 등 기후변화 완화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공공비축 확대, △해외공급망 다각화 지원, △저탄소 프로그램 도입·확대 등이 있다.

2025년 농정이슈 및 농산업 트렌드

#농정이슈③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젊은 세대의 농촌 유입만이 침체된 농업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역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농업 인구는 지속 감소세에 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농업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영농기반 조성 강화 △맞춤형 지원 강화와 지역 연계 촉진을 통한 정착률 제고 △지역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농정이슈④

인공지능(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농업은 전통적 생산 요소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농업인은 고령화되고(노동력 제약),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토지 제약),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에 있다(자본·수요 제약). 기후변화도 농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돌파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기술과 스마트화를 통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다.

스마트팜을 비롯해 드론, 자율주행트랙터, 로봇 등 애그테크 활성화와 농식품 과학기술 R&D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의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구축,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접근성 개선, AI기술 고도화 등 미래 성장농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농정이슈⑤

기후플레이션 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기후플레이션', 이제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폭염과 폭설, 집중호우와 가뭄의 동시적 발생으로 냉해와 병해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매년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다. 수급 불안정 심화는 결국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결국 지난해 '금사과' 논란처럼 물가 이슈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 비상수급안정대책반, 생육관리협의회 등의 유기적 협력, 농산물 공급 물량 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붙고 있다.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을 만나다

“식량안보 책임지는 농업인들이
대우받고 농업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 위해 최선”



농촌진흥청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그 중 연구정책국은 4개과 2개팀으로 구성, 78명의 소속 직원들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농기자재 등록, 기준 설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그려나갈 ‘장밋빛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며, 농업 경쟁력 제고·농업인 소득 증대·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진청 연구정책국의 수장, 김병석 국장을 지난 1월 24일 전북 전주시 농진청 청사에서 만났다.



농업 '전천후 미드필더' 연구정책국...미래 농업 열어가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우려 심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등 농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농업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진청은 민간 협업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 연구정책국은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업무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을 수행하며 미래 농업의 기초와 토대를 쌓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와 농약의 등록, 농약비료 시험 관리, 농기계 관리 등 당장 현장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자재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그야말로 농업 전반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전천후 미드필더'인 셈이다.

김 국장은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해야 할 여건이 녹록치 않아 보이지만 농진청은 환경 대변화, 기



**농업 불확실성 확대
첨단기술 농업 융복합 과제**

**미래 농업 핵심키워드
관련업무 전담 '책임 막중'**

술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연구정책국도 지난해 농진청이 수립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는 등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정책국은 특히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직결되는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된 농약의 등록을 대폭 확대하고 ‘농약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농약 판매 이력관리, 제조·수입 단계의 농약 안전관리 강화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철저한 이력관리
농약 사용량 감축보다 위해성 줄이는 연구에 초점
농약 안전관리 강화 위해성 경감 정책 전환에 매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등록 이후 유통·사용 단계에서의 위해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농약 관리 정책 목표를 사용량 감축(양적 지표)에서 위해성 경감(질적 지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농약의 양적 감축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지만 생산량 증대가 제1목표인 농업인들에게 농약을 절반으로 줄이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나 다름 없었다”며 “농약 사용량 정보가 없어 위해성 경감 모델 도입에 한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장으로 자리한 이후 위해성을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최소 5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위해성 경감으로 초점을 옮겨간 바 있어

우리 농약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래 유입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긴급등록, 부적합 발생이 많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협의,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직권 등록, 수출용 농약 등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현재 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농약 원제 개발 사업 추진…산학연 민간협력 강화

지난해 농진청의 농약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수출전략형 신농약 원제 기반 기술 개발사업 추진과 고위험 식물병원체 연구동 국내 첫 개소를 꼽을 수 있다.

수출전략형 신농약 원제 기반 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2028년까지 5년간 총 253억원이 투입되며 민간 협업을 통해 농약 원제 개발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의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과 총 16개 민간기관(대학·출연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농약은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농자재임에도 국내에서는 2020년 원제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제 개발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 2029년부터 2단계 사업부터는 보다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고위험식물병원체 연구동 개소

지난해 국내 최초로 완공된 고위험식물병원체 연구동(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소) 개소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다양한 고위험식물병원체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민간 연구체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농약 개발을 촉진하는 시발점도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약용 ‘삼농정책’ 되새기며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김국장은 정약용의 ‘삼농(三農)정책’으로 답했다.

“정약용의 ‘삼농정책’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편농(便農)·농사가 편해야 하고, 후농(厚農)·경제적으로 뒷받침 돼야 하며, 상농(上農)·농업인의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는 국가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책임지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래야 미래 농업의 희망이 될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시선을 돌리고 농업·농촌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국장은 “농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들이 대우받고 농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조천읍 동인농원 - 김동찬 대표



국산 신품종 ‘미래향’으로 감귤의 미래를 책임진다!

달콤 풍부한 과즙-껍질도 잘 벗겨져 소비자 선호
순 숙아내가나무 유인 필요 없어...재배관리 무난
하우스 환기시스템 개선 집중 ‘잿빛곰팡이병’ 예방



감귤은 크게 온주밀감과 만감류로 나뉜다. 온주 밀감은 흔히 보는 감귤이며 만감류는 레드향, 진 지향,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한라향 등으로 대 부분 일본 등 외래 도입품종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만감류는 연내에 수확되는 품 종이 드물어 2~3월 수확되는 만감류를 조기 출 하였다. 이로 인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 유통 돼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 구센터는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안에 수확이 가능한 ‘미래향’ 신품종을 개발했다.

2022년 품종 등록-풍부한 과즙 청량한 맛

만감류 신품종인 ‘미래향’은 감귤의 미래를 책임 진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래향’은 맛과 외관 품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던 기 존 만감류와 달리 ‘미래향’은 껍질이 잘 까지며 과육도 부드러워 소비자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귤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품종 등록된 ‘미 래향’은 과실 중량 180~200g 정도 크기일 때 상 품성이 우수하고, 붉은 빛깔을 내는 껍질은 잘 벗 겨지며 수확 후 선별과 유통 과정에서 품위 손상 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평균 당도 12브릭스로 높고 산 함량은 1% 수준으로 풍부한 과즙이 있어 달콤하고 청량한 맛을 자랑한다.



1,500평 규모 시설하우스에서 시범 재배

제주시 조천읍에서 20년 동안 시설하우스 감귤 을 재배해 온 김동찬 대표는 감귤연구센터와 미 래향 시범재배를 하며 신품종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품종의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 며 미래향 재배면적만 4,958㎡(1,500평)이다.

김대표는 “7년 전 일본에서 들어온 미하야 품종 을 심었는데 수확 첫 해에 로열티 문제가 불거졌 다. 당연히 농가 입장에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 다”며 “즉시 감귤연구센터에 로열티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우리 품종을 문의한 결과 육성 중인 만감류 신품종이 개발 중이었고, 그 품종 이 바로 ‘미래향’이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미래향은 재배관리가 상대적으로 용 이한 품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순 숙아내기, 나무 유인 등을 안 해도 될 정도다. 수형이 잘 잡 히고, 재배관리도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미래향’이 다른 품종에 비해 잿빛곰팡이병에 조



금 약한거 같다는 김 대표는 시설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우스 환기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하우스의 습도가 100%라면 이곳의 습도는 80%로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 및 습도 상승에 대비하여 3단 개폐식 환기 시스템 도입, 맨위쪽 3단부터 열어 습도 조절 및 낙과 감소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약 구매 및 방제 기록관리가 중요하다는 김대표는 “병해충 방제시 농약 품목명과 작용기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원제성분은 동일한데 상표명만 다른 똑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방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농약 제품 구매시 꼼꼼한 확인과 기록이 필수임을 귀띔해줬다.

온라인 유통채널 통한 판로확보

신품종은 유통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생산·출하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대형마트를 통한 판로 확보가 어렵다. 소비자에게 품종을 알리는 것도 과제다.

이 같은 신품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온라인 유통채널 레알팜마켓은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 농산물의 연중 유통을 주력하고 있다.

정연범 레알팜마켓 이커머스팀장은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기존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품종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래향을 비롯해 신품종 재배 농가들의 판로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㉞



미니인터뷰

박석만 연구사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내 수확가능한 ‘미래향’ 개발

미래향, 황금향+병감 교배...품종별 장점만 뽑아내
시설하우스 재배 적합...정기적 방제로 궤양병 해결



‘미래향’을 개발한 박석만 연구사는 미래향 개발 배경에 대해 “감귤은 외래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익숙한 만감류도 대부분 도입 품종”이라며 “따라서 연내 수확이 가능한 우리 품종을 목표로 2009년 개발을 시작해 2022년 완료하고 농가 보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향의 특징으로 “황금향과 병감을 교배해 각 품종의 장점을 뽑아냈다. 황금향과 맛이 유사하고 병감처럼 껍질이 잘 벗겨진다”며 “나무 수세가 강해 잘 자라고, 황금향보다 수확량이 10% 가량 더 많다”고 설명했다.

‘미래향’은 병해충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감귤류 시설재배에서 궤양병이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방제만 해 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박석만 연구사는 “‘미래향’은 시설하우스 재배가 적합하다”며 “노지재배할 경우 병해충이 확산될 수 있어 노지재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윈터프린스’ 신품종 공동 개발자인 박석만 연구사는 “윈터프린스는 2016년 최종 선발을 마치고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 하례히메와 태전병감을 교배해 육성한 품종”이라며 “10월 하순부터 착색이 시작되고 12월 초순에는 완전히 착색된다. 12월에 수확해 1월 상순까지 유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농약 인터넷 구매 공 동 구 매 NO!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작물보호협회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우수 추천제품

(주)팜한농

블랙다이아 과립혼연제



‘사파이어’ 약효는 그대로! 더 간편하게 안심 사용!

‘블랙다이아’는 혼연처리형 약제인 ‘사파이어’ 과립혼연제에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를 추가해 잣빛곰팡이병 방제효과가 더 강력하고 흰가루병까지 방제한다.

점화 후 연기가 발생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작업자가 더욱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강하고 빠르게 확산해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약흔이 없고 잔류량도 경엽처리 대비 20% 수준으로 낮아 수확 전 마지막 처리로 최적이다.

한국삼공(주)

삼공디메토 유제



부리응애 전문 살충제, 효과 빠르고 오래 지속

‘삼공디메토’는 부리응애 전문 약제이다. 디메토에이트 46%의 유기인계 제품으로 효과가 빠르고 오래 지속되며, 침투이행성이 매우 강하다. 부리응애는 마늘, 파, 양파, 쪽파, 백합 등 구근류에 피해를 많이 하며, 성충이나 약충이 땅속의 구근을 가해한다. 파종 및 정식과 동시에 부리를 가해하기 시작하여 생육기에서 수확 후 저장 중에도 피해를 유발한다. 부리응애 방제를 위해서는 건전한 종구를 선별하여 종구소독을 해야한다. 파종전 토양살충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생육기부터 수확기까지 예방위주로 ‘삼공디메토’를 관주처리 및 경엽처리로 꾸준히 관리해주어야 한다.

Excellent Eecommended Product

(주)한얼사이언스

나가충 입제



과수류·근채류·채소류 해충 방제의 완벽 솔루션

‘나가충’은 PLS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잔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광범위 토양살충제이다. 최근 사과, 복숭아, 자두, 살구, 감귤에 적용확대 등록이 완료되어 과수원의 토양해충(풍뎅이, 굴뎅이류, 나방 유충, 파리류)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굴뎅이의 탈장을 유도하는 독특한 작용기작을 통해 방제 효과를 발휘한다. ‘나가충’은 과수류(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감귤 등), 근채류(마늘, 양파, 당근 등), 채소류(배추, 상추, 시금치 등)를 포함한 27개 작물의 거세미나방,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청동풍뎅이, 과실파리류 등에 등록됐다.

(주)경농

커트라인 입제



가루이와 굴파리에 탁월! 깔끔한 육묘 필수품

‘커트라인’은 국내 최초의 ‘파종 시 상토산화처리’가 가능한 원예용 입제다. 침투이행성이 우수해 높은 살충효과를 발휘해, 토양 처리로도 효율적 방제가 가능하다. 파종과 동시에 해충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해충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생육 단계에서 작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방제 스펙트럼도 매우 광범위해 담배가루이와 진딧물과 같은 매개충 방제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서방형 입제로 유효성분이 서서히 용출되어 약효 지속기간이 늘어나 긴 시간 동안 효과를 나타낸다.



시드큐어 액상수화제



(주)동방아그로

카소론 입제



36

Excellent Eecommended Product

성보화학(주)

엑스칼리아 액상수화제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 위한 방제 솔루션

‘엑스칼리아’는 국내 신규 물질 인피르플록삼 단제로,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에 뛰어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살균제이다. 높은 침투이행성과 휘산성, 침달성을 통해 잎 뒷면까지 균일하게 약제가 분배되어 강력한 병해 방제가 가능하다. 특히 유묘기와 고온기, 혼용 등 약해에 민감한 시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

‘엑스칼리아’는 고추·단고추류·수박(복수박 포함)·오이·참외의 흰가루병과 딸기·방울토마토·오이·토마토·포도의 잿빛곰팡이병에 등록됐다.

신젠타코리아(주)

인시피오 액상수화제



응애, 나방, 노린재 등 해충 강한 활성-내구성

‘인시피오’는 신젠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리나졸린’ 기술 기반의 신규물질로서 응애와 나방 그리고 노린재를 비롯해 최근 문제 해충들에 대한 강한 활성을 나타낸다. 살포 후 한 시간이면 비가 와도 효과가 보장된다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응애는 알부터 성충까지 전 생육단계에 활성을 띠고, 약효는 광분해나 강우에 대한 성분 안정성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 접촉 활성을 통해 잎을 가해하는 응애뿐만 아니라 나방의 과실이나 줄기 침입, 그리고 노린재의 흡즙 또한 막아준다. 현재 사과, 복숭아, 배, 감귤, 포도, 배추, 수박, 고추, 파 등 18종의 적용 작물에 등록됐다.

(주)경농

설계-시공 전담 ‘지역특화형 첨단 스마트팜’ 개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첨단 스마트팜 준공식’ 개최



(주)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이 충청북도와 손잡고 설계 및 시공한 지역 특화형 첨단 스마트팜 시설이 개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열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첨단 스마트팜 준공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 학계 등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충북농기원은 이 시설을 활용해 충북에 적합한 스마트팜 작물 생산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충북형 작물 생산모델 확립을 목표로 생산모델 개발, 작목 확대, 에너지 절감, 생산량 예측, 데이터 활용, 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규승 경농 스마트팜사업부문장은 “경농은 7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최첨단 스마트팜 설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및 국가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경농

영농활동 고충해결 및 新솔루션 개발 ‘열린공간’ 김제 미래농업센터 10주년…농업 발전 구심점 역할 지속



(주)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의 김제 미래농업센터가 건립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12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 미래농업센터에서 농업인 초청 행사를 가졌다.

(주)경농은 단순 농자재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며 영농활동의 고충을 해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며 농산업 전문기업으로서의 더욱 진일보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과 2016년 각각 전북 김제와 전남 나주에 미래농업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10주년 행사에서는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농업인에게 유용한 영농정보들이 제공됐다.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작물튼튼! 영양관리 세미나’,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편리한 스마트팜 세미나’, 친환경 농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작물재배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주는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세미나’ 그리고 최근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켜주는 ‘확실한 병해충 방제 세미나’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주)동방아그로

염병만 신임 회장 취임 ‘글로벌 농업 혁신’ 비전 연구개발 역량 강화...농업 분야 선도적 역할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진) 염병만 부회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회장으로 취임했다. 염병만 신임 회장은 “동방아그로는 농업인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 50여 년간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서 농업 혁신을 선도하며 농업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해 회사가 농업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동방아그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보호와 농업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염병만 회장은 한국작물보호협회 16대·17대 (2005.3~2011.2) 회장을 역임하며 재임기간 동안 협회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며 회원사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 힘쓴 바 있다.

동오그룹

이병만 회장, ‘제7회 대한민국경영자상’ 수상 한국농업 발전의 리더로 ‘농산업 혁신’ 성과 인정



이병만 동오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농산업계 최초로 ‘2024 제7회 대한민국경영자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인 농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경영자상은 산업 발전을 위해 노

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이번상은 이병만 회장이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주도하며 한국 농업의 발전을 이끈 리더로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회장은 경농과 조비를 발전시킨 데 이어 종자, 친환경농자재, 천적곤충, 관수자재 등 1년 농사 전체를 아우르는 융복합 토탈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편리한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힘쓰고 있다.

이병만 회장은 “농업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농업이 국가의 주요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보화학(주)

‘온(溫) 유(You)한 겨울 나눔’ 프로젝트 진행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에게 특별한 겨울 선물 전달



성보화학(주)(대표이사 윤정선)은 여송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온(溫) 유(You)한 겨울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성보화학(주) 서울 사옥에 모여 160여 명의 경량 패딩 조끼를 정성껏 선물 포장했다. 각각의 선물에는 임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직접 작성한 손 편지도 함께 동봉하여 전국 13개의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임규동 성보화학 인사지원본부장은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담아 손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줄 선물 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보화학(주)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 실천’ 모범 기업 자리매김



성보화학(주)(대표이사 윤정선)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38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와 참여 부처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성보화학(주)은 시차출퇴근제 확대와 정시 퇴근 문화 정착을 통해 근로 시간 단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징검다리 연휴 운영과 같은 유연한 휴가 제도를 도입해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근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영유아부터 대학까지의 학자금 지원 등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윤정선 성보화학 대표이사는 “성보화학은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직원의 삶과 업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 왔다”며, “이번 수상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신젠타코리아(주)

‘그로모어 프로그램’ 탄소중립 효과-국제적 가치 입증
실사용 농가 성공 사례 공유 ‘그로모어 워크숍’ 진행

신젠타코리아(주)는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구현희 교수팀과 공동 진행한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벼 수확량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조사’ 연구를 통해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수확량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학교의 이번 연구 논문은 스위스 온라인 학술지 출판연구소(MDPI)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Agronomy’에 지난해 10월 게재되어 ‘그로모어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국제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에 신젠타코리아(주)는 이번 성과를 기념하고 ‘그로모어 프로그램’ 실사용 농가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그로모어 워크숍’을 개최했다.

손준기 신젠타코리아 연구소 팀장은 “이번 연구는 그로모어 프로그램이 병해충 방제, 수확량 증대,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농업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임을 입증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신젠타코리아(주)

‘그로미 나누미’ 캠페인 진행

그로모어 농법으로 재배한 ‘그로미’ 지역사회에 기부



신젠타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30일 ‘그로모어’ 농법으로 재배한 고품질 쌀인 ‘그로미’를 기부하는 ‘그로미 나누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로미 나누미’ 캠페인은 신젠타코리아(주)가 구매한 쌀에 임직원의 기부를 더해

지역 사회에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3회째를 맞아 충북 제천시의 참좋은행복나눔재단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한 총 200포대(10kg)의 ‘그로미’ 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신젠타코리아의 백승보 영업본부장과 임화정 인사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재단 측에서는 유영화 이사장 및 이상천 이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백승보 영업본부장은 “‘그로미 나누미’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젠타코리아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젠타코리아는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개발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한얼씨아인스

임직원 역량 강화 ‘영업&마케팅 집체교육’ 성료 ‘Basics, Grow Together!’ 초심으로 함께 성장하다



(주)한얼씨아인스(대표이사 심봉섭)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태백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영업&마케팅 집체교육을 ‘Basics, Grow Together!’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초심의 열정을 되

새기며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집체교육은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주요 중점제품과 향후 출시를 앞둔 신제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트렌드와 고객 요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팀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팀빌딩 교육을 진행하며, 협업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심봉섭 대표이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회사의 성장 동력”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주)팜한농

고객경험 전담 조직-시스템 구축 ‘고객경험 혁신’ 전략 다각도로 고객의소리 청취, 개선 결과 직접 피드백



(주)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이 농업인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고객경험 혁신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CPPM(Customer Pain Point Management) 시스템

을 구축해 구조화된 데이터로 고객경험을 관리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또 고객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고객 케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핵심고객 담당 직원은 연 2회 이상 고객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객의 재배 작물과 면적 등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과 토양 분석 서비스 등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주)팜한농은 고객 대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매년 ‘고객가치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해 고객경험 혁신을 확산시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재)한광호
기념사업회

‘제11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 성료

농업대상-김복성 대표, 농업연구상-이종희 박사, 농업공로상-김충희 소장



‘제11회 한광호 농업상’에 김복성 더불어민주당 농장 대표가 ‘농업대상’을 이종희 국립식량과학원 박사가 ‘농업연구상’을 김충희 KOPIA 가나센터 소장이 ‘농업공로상’을 수상했다.

(재)한광호 기념사업회(이사장 한태원)가 주최하고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동우)이 후원하는 ‘제11회 한광호 농업상’ 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화정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새로운 10년, 더 큰 미래’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의 감사의 메시지 영상으로 시작을 알리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총 1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한동우 한국삼공 대표이사는 “한광호 농업상 수상자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오늘의 결실 못지않게 내일의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연구인과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심사위원장(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김복성 대표는 우량종자 생산 및 시험포장을 통한 품질 향상과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콩 산업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업연구상을 수상한 이종희 박사는 “gs3 유전자에 메탄을 줄이는 작용 기작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품종 밀양360호를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농업공로상을 수상한 김충희 소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농업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나방관리 솔루션 라피드®

글로벌 농업전문 선도기업
신젠타코리아(주)

한국작물보호협회 ‘2025 신년인사회’ 개최

작물보호제 산업계의 화합과 지속 발전을 다짐



신년 인사를 전하는 염병진 회장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는 지난 1월 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2025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을사년 새해 작물보호제 산업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협회 염병진 회장((주)동방아гро 대표), 한동우 부회장(한국삼공(주) 대표), (주)농협케미컬 하명곤 대표,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이지숙 대표, (주)팜한농 김무용 대표, 선문그린사이언스(주) 김동진 대표, (주)한얼사이언스 심봉섭 대표 등 각 회



건배사를 하는 한동우 부회장

원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물보호제 산업계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며,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 공급과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염병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작물보호제 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패턴과 병해충 발생 양상의 변화로 방제의 어려움, 환경과 인체 위해성을 줄인 안전한 농약 공급, 지속가능한 작물보호제 산업을 위한 신물질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2025년 작물보호제 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시기이다. 우리 산업계는 농업인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작물보호제개발 및 공급에 더욱더 힘써야겠다”고 전하며 회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조연을 당부했다.

이어 협회 회원사 대표단의 풍년농사 기원 떡 자르기가 진행됐으며, 산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건배 제안자로 나선 한동우 부회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정

차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무탈(無頃)을 기원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여 작물보호제 산업이 한 단계 더욱더 도약·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끝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 받으며 미래지향적인 작물보호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뜻 깊은 만남과 교분을 돈독히 하는 훈훈한 시간을 나누었다. ☺



주목! 방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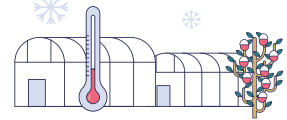


한유경 연구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겨울철 시설채소의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

육묘-정식 후 시설내 과습, 밀식, 환기관리 신경
밀폐된 환경조건...단시간 크게 병해 발생 위험

겨울철 시설작물 병해충, 예방차원에서 환경 관리
작물별 병해충 등록약제 선택-안전사용기준 준수



시설 내에서는 작물이 자라는 환경이 일반 노지재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의 종류와 발생양상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육묘와 정식 후 시설 내에서 과습, 밀식, 환기관리의 미흡 등은 병 발생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며 밀폐된 환경에서 단시간에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시설재배에서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 등 병해와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등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 시설작물의 병해충 관리는 예방차원에서 식물체를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설환경관리와 각 작물 병해충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선택한 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병해관리의 기본이다. 병해충 방제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ri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채소 병해 관리

☞ 잿빛곰팡이병



딸기 잿빛곰팡이병

토마토, 고추, 가지 등의 가지과 작물과 오이 등의 박과채소 등 많은 작물에 발병하며 기주범위가 광범위하다.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고 습도가 높을 때 밀폐된 시설재배에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거나 햇빛이 부족해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랄 때 많이 발생된다.

과실, 잎, 과경, 잎자루 등 지상부 모든 부위에 발생하나 특히, 잎과 과실에서의 발생이 심하다. 잎에서는 초기에 갈색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대형병반으로 확대된다. 심하면 잎 전체가 고사한다. 과실에는 처음 암갈색의 작은 원형병반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과실 전체가 물러 썩는다. 줄기에서는 꽃잎이나 잎이 떨어져 달라붙는 부위에서 발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갈색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어 심해지면 줄기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한다.

병든 부위에는 잿빛의 분생포자가 밀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나 눈이 오거나, 구름 낀 날에 하우스 내의 습도가 높아지면 많이 발생한다. 시설 내부가 다습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관수량을 줄이고 환기를 충분히 한다. 병든 잎과 과실은 일찍 제거해야 한다. 저온기 재배 시에는 온도조절 만이 아니라 난방을 하여 습도를 낮게 관리해야 한다.

방제약제 살포 시에는 등록된 약제중 수화제보다는 시설내의 습도를 낮출 수 있는 훈연제나 미분제의 사용이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적합하다. 훈연을 하면 작물의 병해 예방 및 방제뿐만 아니라 실내소독을 하여 다른 병해 방제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약제 방제는 예방 위주로 해야 하며 잿빛곰팡이병균은 약제에 대한 내성의 우려가 크므로 같은 계통 약제의 연용을 피하여 방제한다.

☞ 흰가루병



토마토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오이, 호박 등 박과 작물을 비롯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고소득 시설작물에 주로 발병한다. 통풍이 불량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할 때 발생이 심하다. 특히, 연중재배하는 경우에는 일조부족, 고온, 환기불량, 밀식재배, 연작재배, 질소비료 과잉 등으로 격발되어 시설 전체로 만연된다.

아침, 저녁의 낮은 온도는 시설 내 이슬이 쉽게 맺히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잎 표면이 말랐을 때 쉽게 전염된다. 때문에 이슬의 발생을 줄이고, 내부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흰가루병은 노지보다 시설재배에서 하우스 안이 건조하면 발생이 심하다. 또한 밤낮의 온도차가 심한 봄, 가을철 및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으며, 병이 진전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초기방제가 필수적이다.

초기 방제에 실패할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 병원균의 군사와 포자가 잎 표면을 하얗게 덮어 광합성과 호흡을 저해, 작물의 동화작용과 증산작용을 감소시켜 작물의 생육저하나 고사 등 큰 피해를 유발한다. 대형하우스나 연동하우스가 소형 하우스에 비해 건조하여 병 발생이 많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염원의 증식이 빠르므로 약제 방제는 예방 위주로 해야 하며 침투이행성 약제는 내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용을 피하여 방제해준다. 발병초기에 적용 약제를 2~3회 살포하면 효과적이다.

노균병

노균병은 박과작물 특히 오이, 참외, 멜론 재배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며 상추, 시금치 등에



오이노균병

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배 작형에 관계없이 초기부터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준다.

노균병은 잎 뒷면에는 이슬처럼 보이는 곰팡이가 다량 형성되어 흰색 혹은 회색으로 보인다. 병든 잎에 붙어 있는 분생포자가 바람이나 물방울을 통하여 공기전염이나 물을 통한 수매전염을 한다.

보통 생육 중기 이후부터 아래 잎에서 먼저 발생되며, 발병 적온은 20~25℃이다. 발병에는 95~100%의 고습도가 필수적이며, 병원균의 침입 이후에도 다습한 조건이 요구된다. 노균병을 방제할 때는 잎 뒷면에 병원균 군사가 존재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약제가 잘 묻도록 주의를 기울여 살포하여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환기를 철저히 하고 하우스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한다. 병든 잎은 일찍 제거한다. 약제방제로는 많은 경우 동일한 계통의 약제의 연용으로 저항성이 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교호 살포하는 것이 좋다.

시설채소해충 관리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충인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등은 크기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대량으로 정밀하게 예찰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 출입구와 측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외부에서 내부로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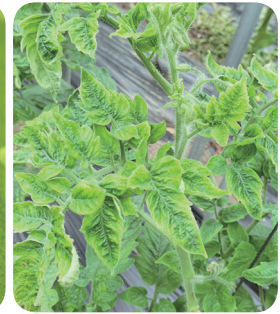
특히, 토마토황화잎
말림바이러스(TYL-

CV)를 옮기는 담배가루이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충망 눈 크기가 50메쉬(1인치당 가로×세로 구멍의 개수) 이상인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생육 초기부터 자주 들여다보고 황색끈끈이트랩 등으로 해충 발생을 살피고 해충이 발생했다

출입구-측창에 방충망 설치 해충유입 방지
생육 초기부터 관찰...황색끈끈이트랩 설치



담배가루이 성충



담배가루이 매개 바이러스 (TYLCV) 피해

면 즉시 적용 약제를
뿌려 방제하여준다.
시설 주변 잡초는 해

충의 주요 서식지로 온실 내부로 유입될 때까지 중간 기주(숙주), 월동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해충 발견 시 3~5일 간격 3회 정도 성분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하거나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해 준다. ㉞

시설작물 병해 관리요령

천창, 측창, 환기팬 등 설치로 습도 낮추고
병든 잎·식물체 즉시 제거·방치 말고 소각

시설하우스 안에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병원균 밀도가 높아지니 천창이나 측창,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 습도를 낮추고 병든 잎이나 식물체는 초기에 다른 식물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 고랑 등에 방치하지 말고 소각한다.

점적관수 등을 통하여 토양수분의 과잉을 막아서 시설 안의 상대습도를 낮게 관리한다.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지기 전 병 발생초기에 예방차원의 등록약제를 적정배수로 희석하여 충분히 살포하며,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한다.



고추 병해충 방제시 영양제 과다 혼용은 생육불량 일으켜



이인용 기술위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경북 △△시 **면에서 단동 비닐하우스 8동 2,288m²(870평)의 규모로 무가 온으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이○○, 65세)에서 2024년 8월 26일에 고추를 정식했다. 생육 초기에는 생장이 양호했으나, 10월 중순부터 순맛이 현상과 상위엽이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했다.



현장 조사 결과

2024년 11월 4일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모든 하우스에서 고추 최상위 부근 생장점 부위의 어린잎이 위로 말리고 (바이러스 증상과 유사) 고사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추 뿌리는 부정근이 많이 발생하는 등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배나방에 의한 피해도 있었지만, 순맛이 현상 등 생육불량과는 인과관계가 적었다.



시설재배 고추 포장 생육 전경

2021년 하우스 조성시 4개동에 미숙 우분 12톤과 계분 12톤을 밑거름으로 넣었고, 2024년 8월 10일 다른 4개동에 우분 8톤과 계분 8톤을 투입했다. 시설하우스 4개 동(마사토로 객토)의 유효 토심은 38~53cm 이었고, 다른 4개동은 유효 토심이 20~24cm이었다.



종합 검토의견

고추를 2024년 8월 26일 아주 심기한 이후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러 번 농약(살충제와 살균제)과 여러 가지 영양제를 혼용 및 고농도로 살포하여 생장점 부위의 잎이 말리고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어떤 경우에는 고추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살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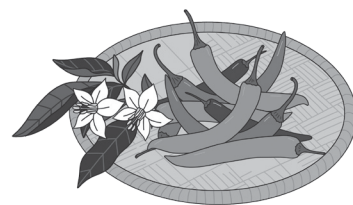
뿌리 발육상태: 부정근 발생



기술지도 방향

고추 시설재배 하우스 모든 식물체(고추와 헛골의 잡초 포함)의 생장점 부위의 잎이 약해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고추 회복을 위하여 비교적 피해가 적은 시설하우스 내의 고추에 요소 0.3% 액을 5~7일 간격으로 3회 엽면시비를 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고추가 회복되면 토양이 과습되지 않도록 적정 물관리를 하도록 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용할 때는 혼용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살포하고 이외에 칼슘제, 발근촉진제, 생장조정제 등을 같이 사용하면 약해가 발생하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한 농약 살포시 고추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도 현장기술지도했다.



고추 웃거름으로 주는 비료는 붕소가 포함되지 않은 NK비료를 10a에 1kg을 7~10일 간격으로 물에 녹여 줄 것과 시설하우스 내에 우분과 계분 퇴비의 과다 사용에 의한 토양 내 염류 집적과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벗짚을 10a에 2톤을 넣고 깊이갈이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다음 작물을 심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재배 예정지의 토양검정을 분석 의뢰하여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은 후 적정량의 시비를 하도록 당부했다. ㉠



생장점 부위 잎 변형 및 위축

‘유해성’과 ‘위해성’ 농약안전성 이해의 ‘첫걸음’



조유미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농약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농자재이다.

그러나 농약은 병해충, 잡초를 방제할

목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와 관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인데,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내 농약 안전성 평가의 기본을 이해하고자 한다.



유해성평가농약 독성데이터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6종 독성시험 평가...독성구분-취급제한 기준 설정

위해성평가-특정 조건의 실제 위험을 정량적 분석 소비자(식이)-농약 살포자(비식이) 위해성평가 수행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의 개념

유해성(Hazard)은 물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이는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며, 물질에 노출되는 조건이나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반면 위해성(Risk)은 특정 조건에서 실제로 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물질의 유해성 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노출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예로 전기는 감전, 화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기는 물기가 있는 환경에 놓이거나 부주의하게 다뤄지면

실제로 유해성이 발현할 가능성이 커져 위해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다른 예로 농약은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성이라는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이 높은 농약이더라도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용 지침을 준수하면 실제 위해성은 낮아질 수 있다.

국내 농약 평가에서의 유해성과 위해성 적용

유해성평가는 농약의 독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목

■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의 비교

구분	유해성(Hazard)	위해성(Risk)
정의	물질 자체가 지닌 고유한 위험성	특정 조건에서 실제로 해가 발생할 가능성
영향요인	물질의 본질적 특성	노출 조건, 빈도, 사용량 등
고려대상	물질 자체	물질과 노출 가능성의 상호작용
예	강한 독성을 가진 농약 성분	안전지침에 따라 사용하였을 때 낮은 위해성을 보이는 농약



은 급성독성 및 자극성, 감작성 시험을 포함한 6종의 독성시험 결과를 평가하여 독성구분과 취급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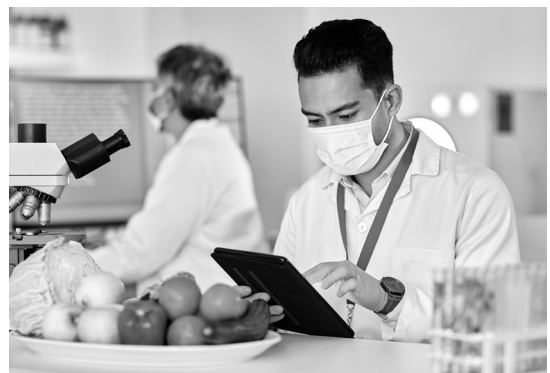
원제의 경우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등 23종의 독성시험 결과를 평가하여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설정된 안전기준과 농약 노출량을 활용하여 품목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위해성평가는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품목은 직접 사용되므로 독성과 노출 수준에 따라 별도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를 위해 소비자 위해성평가(식이)와 농약 살포자 위해성평가(비식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위해성평가는 원제의 독성시험 결과로 도

출된 일일섭취허용량(ADI)과 작물에 잔류하는 농약량, 식품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비자 농약 노출량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즉,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 mg/kg)과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TMDI,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에 준하여 평가하며,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TMDI) 값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의 80%를 초과하지 않으면($TMDI \leq 80\% ADI$)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성평가에서는 해당 원제의 독성시험을 근거로 설정된 농작업자노출허



용량(AOEL)과 한국형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 모델(KoPOEM, Korean Pesticide Operator Exposure Model), 야외포장조건에서의 실제 노출량 측정 데이터가 사용된다. 예측모델 또는 실제 측정시험에서 산출된 노출량이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보다 작으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외 농약 평가에서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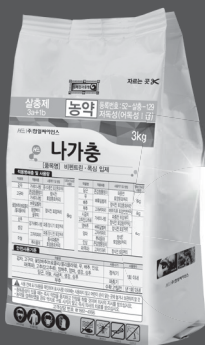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유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 원칙으로 발암성, 번식독성 등 잠재적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성과 함께 노출 조건과 빈도,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정량적 위해성평가(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수행한다. 즉 발암성, 번식독성,

신경독성 등 위해성평가지, 특정 노출 수준에서 독성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내 농약 평가 향후 전략

국립농업과학원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농약 독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성평가 분야는 OECD 시험법을 개발하는 국제회의에서 국가조정자로서 참여하는 등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평가 체계는 유해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평가는 소비자와 농약 살포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의 과학적 정밀도를 높여 사람에 대한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발암성, 번식독성, 신경독성 및 농작업자, 거주자 등 위해성평가 대상과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㉞

작물잔류에 안전한 광범위 토양살충제



나카충

입제

발작물부터 과수까지!
광범위한 적용작물 및 해충!
작물잔류에 안전!

H3 [주]한일싸이언스 ☎ 고객상담전화 1661-4166

'과수' 청동풍뎅이 등록



사과 · 복숭아 · 자두 · 살구

등록작물

과수류 (5작물) : 사과, 복숭아, 자두, 살구, 감귤

채소류 (13작물) : 고추(단고추류), 꽃양배추(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배추, 부추, 상추, 시금치, 양배추, 마늘, 양파, 청경채, 취나물, 파(쪽파)

근채류 (7작물) : 감자, 고구마, 당근, 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우엉, 인삼

경계(境界)가 사라지는 시대 ‘뱀의 감각’으로 기회를 잡아라

‘소확행’ 지고 ‘아보하’ 뜬다...10대트렌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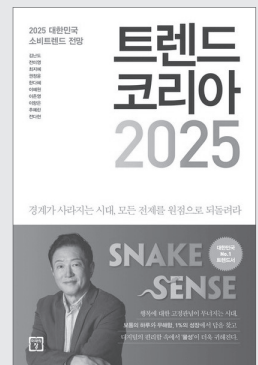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트렌드 전문가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2025년 새롭게 떠오를 개념을 소개했다.

2025년을 강타할 키워드는 뭘까? 저자는 2025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채라’고 조언한다. 뱀의 해, 2025년의 소비트렌드는 10개 키워드로 압축했다. 각 키워드의 영문 앞글자를 모으면 ‘SNAKE SENSE’, 뱀의 감각이 된다.

출처: 이코노미리뷰, 뉴시안



옴니보어

Savoring a Bit of Everything : Omnivores

옴니보어(omnivore)란? 사전적으로는 잡식성(雜食性)이라는 의미인데,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회학에서 ‘옴니보어’ 개념은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트렌드코리아 2025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옴니보어라고 칭하고자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옴니보어’들은 기존의 인구학적 기

준으로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관심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 패턴을 보인다.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이 지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옴니보어’ 소비현상이다. 고정관념이 사라진 시대, 모든 전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아보하 Nothing Out of the Ordinary : Very Ordinary Day

한국 사회의 행복 담론이 바뀌고 있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지 있게 여기는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말한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란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 행복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아보하’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는 젊은 세대의 좌절을 반영한다. 그러나 ‘아보하’는 우울과 절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치유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토픽경제 All About the Topp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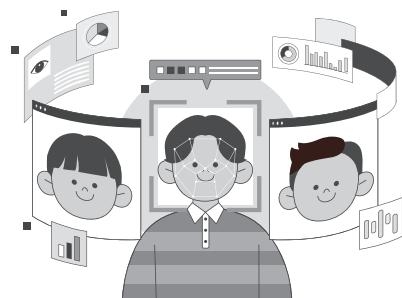
흔히 기본적인 것에 더해지는 추가 장식이나 옵션을 ‘토픽’이라고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도우)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픽이 더욱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토픽경제’라고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토픽은 최근 시장에서 고객의 만족을 최적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피자의 도우가 같더라도 토픽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신발, 같은 가방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이 된다. ‘토픽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페이스테크 Keeping It Human : Face Tech

기술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처럼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읽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급성장하는 트렌드를 ‘페이스테크’라고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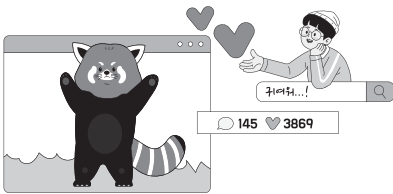
얼굴과 표정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말이다. 얼굴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마, 턱 등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말한다. 얼굴은 다양한 근육을 미세하게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를 표정이라고 한다.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며, 표정은 감정과 상태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다. 영어의 face는 얼굴과 표정을 모두 의미하며, ‘페



이스테크’ 역시 얼굴과 표정을 포괄한다. 누구나 먼저 얼굴을 본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페이스테크’가 뜬다. 생성형 AI 만능시대,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받을 것이다.

무해력 Embracing Harmlessness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다.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사방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즉 '무해력(無害力)'이다. 결론적으로 무해력 트렌드는 자극이 난무하고 서로를 향해 날이 서있는 갈등의 시대에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나의 생각을 정화해주는 존재에 대한 갈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라데이션K Shifting Gradation of Korean Culture

더 이상 인종으로 한국인을 규정하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사람 그라데이션). 울란바토르에 동탄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몽탄신도시가 들어섰다(문화 그라데이션). 과거 돈벌이를 위한 경유지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인인 내수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했다(시장 그라데이션).

IMF는 선진국의 취업자 중 이민자 비율이 1%P 오르면, 5년 후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민자로 인해 향상된 생산성이 현지인의 평균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 인구 비중이 5%에 육박하는 '다문화 국가'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K는 0과 1 사이에서 그라데이션이 진행중이다. 그라데이션(gradation)은 농도나 정도가 변해가는 단계를 뜻한다. '그라데이션K' 시대에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 할 때다.

공진화 전략 Strategy of Coevolution

공진화란?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개의 종(種)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공진화는 좁게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부터 넓게는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일어나는 형질 변화 등의 생물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共進化)'에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숨어있다. 상호연결성이 높아

진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고, 애플은 오픈시와 손을 잡는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 전략, '공진화'에 주목하라.



물성매력 Experiencing the Physical : the Appeal of Materiality

디지털 사회라지만 우리는 엄연히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한다. 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체험된 '물성(物性)'으로 경험하고자 하며,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물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신상품을 이해할 여유가 없어지고, 따라서 그 효용성을 쉽게 체감하게 할 방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상품에는 '물성'의 매력이 필요하다.



기후감수성 Need for Climate Sensitivity

역대급 무더위가 삼켜버린 2024 대한민국.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후감수성'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은 저서 「폭염 살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에어컨의 안락함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에어컨은 냉방 기술이 아니라 실내의 열을 실외로 옮겨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우리의 쾌적함을 위해 가동하는 에어컨이 기후위기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하며, 에어컨이 주는 달콤한 시원함 때문에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원포인트업 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 : One-Point-Up

원포인트업이란?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제까지의 자기계발 담론이 '도약'이라는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원포인트업'은 현재에 충실하며 한 가지씩 바뀌가는 느린 진화를 추구함으로써 질적 변화에 방점을 찍는다. 식물처럼 그 자리에 있되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햇볕을 쬔고 양분을 흡수



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원포인트업'은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긍정 운동이기도 하다. 팽창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과는 달리, 이제는 지금 현재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나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때를 아십니까? 명절 선물세트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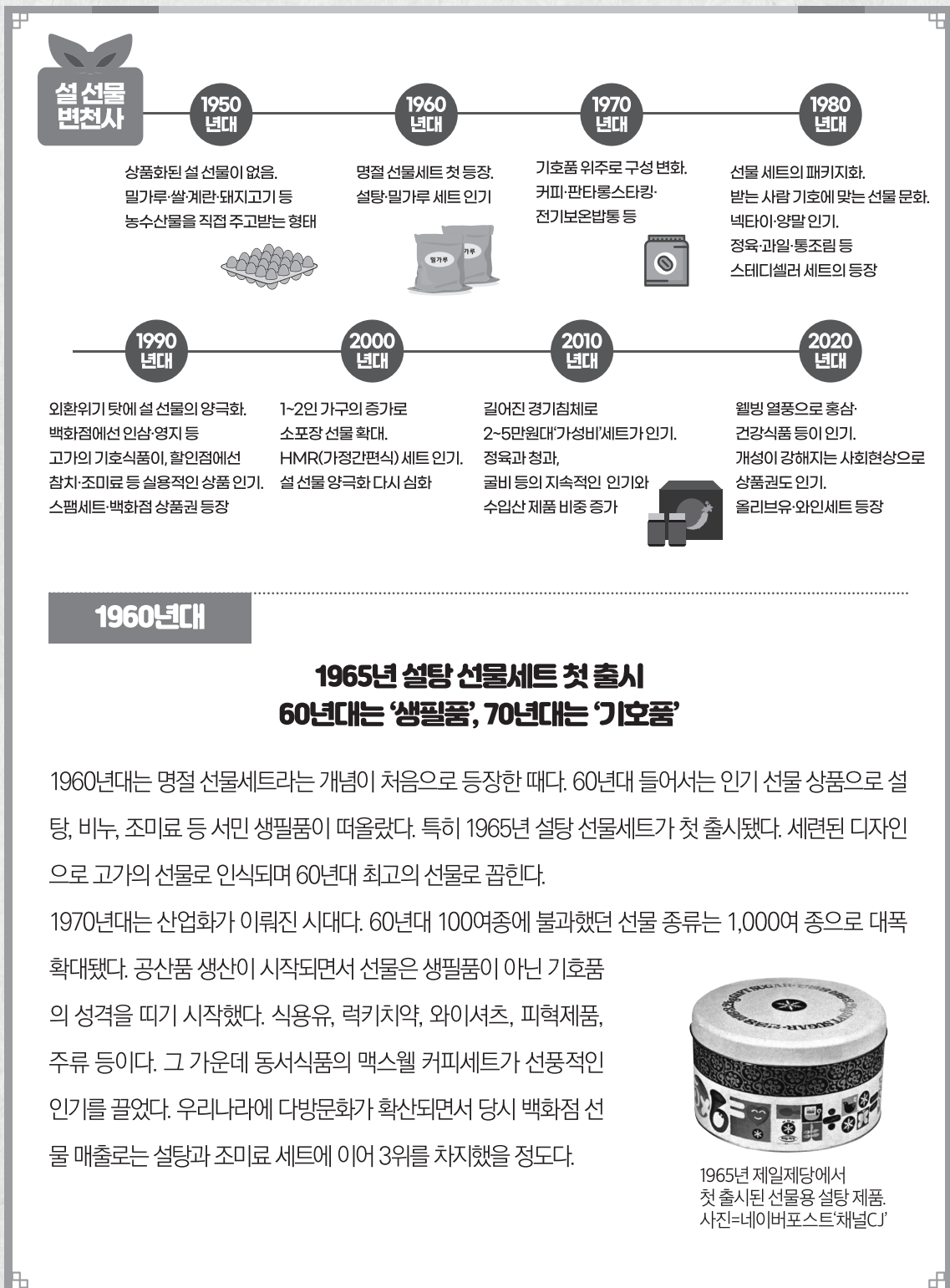
설탕·비누 선물에서 와인·소고기로
선물세트를 보면 '시대가 보인다'



그 옛날 그 시절엔 명절 선물하면 설탕, 비누 같은 생필품이 떠오르던 때가 있었다. 2025년 현재는 설탕과 비누는 선물세트 목록에서 찾아보기도 힘들다. 지금은 9,000 만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 세트도 팔릴 정도로 명절 선물세트도 크게 변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명절 선물세트는 당시의 소비심리와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는 1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아시아타임즈, 네이버뉴스





1980년대

생활품에서 기호품으로 변화 '80년대 선물세트 문화 정착

1980년대의 경제 호황은 고스란히 선물세트의 고급화로 반영됐다. 받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물건을 선물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선물세트가 패키지화되기 시작했다. 넥타이, 스카프, 지갑, 벨트, 양말세트 등 신변 잡화와 함께 식품이 보편적인 선물로 급부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80년대 들어 선물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는 외환위기 전후로 선물 문화가 달라졌다. 90년대 초까지는 100만원이 넘는 위스키 및 굴비 등 값비싼 제품이 큰 인기를 끌 정도로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

인삼, 꿀, 영지버섯 등 지역 특산물도 각광받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저가 상품이 떠올랐다. 당시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성장과 맞물리며 중저가 실용 선물세트를 마트에서 사는 것이 보편화됐다. 햄, 식용유, 참기름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히트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문화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성향이 확산되며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상품권이 선물로 등장했다.



1990년대 콩기름 선물세트.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저가의
선물세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사진=네이버포스트 '채널 CJ'

2000년대

2000년대 웰빙가성비 넘어 소포장효율 중시 트렌드로

2003년부터 삶의 질을 고민하는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홍삼 세트 등 건강 관련 상품이 늘었다. 올리브유 선물세트, 와인 세트가 처음 등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백화점 중심의 고가제품과 할인점 중심의 중저가 세트가 양분화됐다. IMF 한파로 사라졌던 100만원짜리 굴비세트가 백화점에 다시 등장했고, 할인점은 햄과 참치캔 등 실용적인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2010년은 가성비가 선물세트의 덕목으로 부상했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위해 정육과 청과, 굴비 등 인기상품 내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점차 늘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 선호가 높아졌다.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굴비 한 두름 대신 '3마리 굴비'가 등장했다. 가정간편식(HMR) 선물도 새롭게 등장했다. 추석을 홀로 보내는 2030을 위한 혼밥 선물세트 등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만두, 돼지갈비찜, 간장찜닭,

사골육수 등 설 명절에 해먹기 좋은 메뉴들부터 제수음식까지 신선 간편식으로 출시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차례상 음식을 신선식품 그대로 배송받아 상에 차리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가정간편식은 1인가구를 위한 제품을 넘어, 새로운 식문화로 보편화되면서 명절에도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색선물

떡국부터 제수까지 '편리미엄' 선호 반려동물 관련 선물세트도 증가세

고급스러운 어묵 선물세트부터, 연양갱 선물세트, 애플망고 선물세트,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세트 등 명절 선물의 풍속도를 바꾸고 있는 이색 선물세트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어묵이 명절 선물로 떠오르는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먹던 반찬용 사각 어묵이 이제는 다양한 간식용, 식사대용, 제수용 어묵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은 물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이색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인을 위한 선물세트도 대거 출시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고객들을 위해 '동결 건조 견묘 세트' 간식세트를 선보였으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선물 품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UIZ1

사진 속
틀린 곳 찾기



사진 속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힌트는 3곳!!
틀린 곳을 찾아 응모해주세요!



QUIZ2

브루코
날말 퀴즈



농약 ○○○○○ NO! (33p 참고)

○○○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1·12월호 정답·당첨자

• 틀린그림찾기:



• 당첨자: 김정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장해륜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52번길
하대국 경북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 날말퀴즈: **범죄행위·500만원**

• 당첨자: 강성남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로
김동순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2가지 모두의 정답을 엮거나 e-메일로 2월 28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주)농협케미컬에서 협찬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곳 서울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대양빌딩 5층)

☐ 메일주소 jwpark@koreacpa.org (응모자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정답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복 사용된 정답 사진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당첨자 발표 후에도 적용)